

꿈의 두드림

어릴 적 난 여러 장의 나뭇잎이 뭉개지듯 변색해 가는 흔적들을 응시한 적이 있었다. 약간은 움푹지고 습한 환경이라 물체의 본질은 이미 사그라지고 탁했다. 하지만 나뭇잎 원래의 뼈대 줄기들은 도리어 또렷이 드러나 보였다. 그 생소한 기하학적 무늬의 선명함이 묘하게 뇌리에 각인이 되었다. 본래의 빛을 잃을 때까지의 시간의 흐름이 내 의식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변모해 가는 이면의 다른 시간이 함께 운행됨을 감지했다. 그건 상상이 채택한 다른 세계로의 도약이었다. 분명 나뭇잎은 본래의 형태가 허물어지고 퇴색한 상태였다. 그러나 태생적 토대 날 것들이 버터내는 힘은, 서로 맞물려가며 탄력을 유지했다. 그건 또 다른 생명의 근원이었다. 아름다웠다. 비록 몰락의 형태였지만 새로운 탄생과 진배없었다. 그때 내 의식 안에는 생성과 퇴락 그 경계의 지표는 허물어지며 희미해져 갔다. 그 같은 기억이야말로 내 예술이 인식한 최초의 반짝임의 하나였는지도 몰랐다.

가끔은 몽환적 오수 속에 잠겨 들곤 한다. 작업 중인 상태에서도 그런 순간들은 불시에 찾아 든다. 주제 선택의 절대적 자유, 세부적이고 정확한 이미지의 표현, 견고하고 분명한 성찰의 확립 그런 습관화된 관념보다는 가볍게 도취 된 채 아주 무심결에 이루게 되는 집중에서 색다른 영감의 원천을 떠올린다. 철이라는 내 작업의 모멘트는 늘 리듬을 수반한다. 감각이 해방되고 상징적 언어 표현의 불가능을 풀어주는 키워드가 그것이다. 본래의 딱딱한 재료를 순화시켜 정서적 파동을 일으키는 질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내 의식의 측수는 항상 꿈틀거린다. 살아 움직이는 그것만이 어떠한 생명의 근원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인 것이다. 과거로만 기록되지 않고 현재에 부착 당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꿈꾸는 예술을 지향한다. 두드림, 내게 그 같은 두드림은 불멸의 삶을 이루고 진화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애쓰는 유일한 도구이자 감정의 근본이다.

꿈과 생시의 순간을 오가며 오랜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사이 꿈꾸었던 세계는 균질을 부정한 비현실적 요소가 내재 될 때가 간혹 생겼다. 내밀한 감성의 집합은 아니어도 치밀한 인식의 재현을 열망한 결과물이기도 했다. 시간의 질서를 위반함으로써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을 무시하며 내 의식은 움직인다. 그런 행위는 삶과 텍스트가 서로 침투적이고 대화적인 관계로 매듭짓고 싶은 욕망이 내부적으로 들끓기 때문이다. 공시적 공간을 관통하는 새 생명의 울림, 하나의 세계 속에 갇히지 않고 상상의 진폭을 확장하려는 변화이기도 했다. 절망스러운 하나의 머무름을 타파한, 낯설지만 이내 친숙한 불가해한 그림의 삶을 원한다.

따라서 내게 그림은 여행이다. 온갖 대지를 밟고 달리듯 내 달림의 속도에 맞춰 철의 두드림은 손목의 장단만으로 다양한 세계의 모습들을 펼친다. 수용하거나 신속히 빠른 동작으로 다른 세계로의 이동도 모호한다. 구태여 삶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도 영원하게 느껴질 현세의 시간을 찾고 또 찾는다. 생은 다만 구원도 징벌도 없이 다만 살아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체념적 일상처럼 때론 답답할 정도의 지루함도 견딜 부분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 항시 그렇듯 기억 안에 존재하는 내 여행의 시작은 현실에서 자각하지 못하는 곳을 찾는 외로운 작업이었다.

항상 철이라는 날카롭고 강한 재료에 손이 간다. 다양한 기법의 테스트를 통해 나오는 결과물이 날 매료시키기 때문이다. 나의 비현실적 감각의 구현에 앞서 철은 상상 이상의 만족을 보장해 준다. 그것을 통하여 건네받는 에너지는 나를 한없이 작업에 몰두하게끔 유도한다. 평면적인 회화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한없이 깊고 오묘한 연출의 삶을 형식 삼고자 애쓴다. 삶의 본질과 형식을 탐구하는 질료와 형상으로 철은 내 영감의 원동력으로 작동한다. 두드리고 두드리는 그라인딩 작업이 더해지면서 나의

표현은 점점 거침이 없어진다. 철을 다루는 기법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나의 세계관을 확고히 하면서, 자연 현상과 근접되고 진지해진다. 특히 두드리는 과정에서 입체가 드러나고 철의 속살이 내비치며, 작품은 한층 밝은 빛을 더한다. 비현실적 실체를 현실의 세계로 끌어내는 하나의 구현인 것이다. 거기에 물감의 작업이 더해지면, 지금까지 작업 과정에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율동을 예감한다. 퍼즐을 맞춰가듯 박자를 찾는 나의 꿈은 잠재된 무의식의 발현이 아닌 무궁한 여행지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여행 전 준비물을 챙기듯 나는 여러 가지 퍼즐 재료들을 모아가며 가방 안에 넣는다. 틈나면 그 퍼즐 조각들을 꺼내 두드리는 과정을 거친다. 각인된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완성된 퍼즐이 소환된다. 일련의 이런 과정이 나에게서는 신체의 초 감각적인 염체(elemental)를 만든다. 그러면서 염체라는 새로운 꿈의 여행 지도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다. 직역하자면 이 꿈의 여행 지도가 나의 작품 세계인 것이다.

